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엄청난 후폭풍이다. 경제부터 흔들린다.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은 물론 주식시장도 고전 중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이 144조라고 한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 677조의 20%가 넘는 금액이다. 다행스럽게도(?) 기관이 8000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더 이상의 증시급락을 막았다. 이 중 6000억 원은 국민연금에 포함된 연기금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쏟아 부어 증시폭락을 막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의 성장률 전망은 1%대로 낮았다. 계엄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0%대 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물론 한국경제의 규모와 역량에 비추어보면 이번 사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시적이겠지만 한국의 국제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당장 정상 외교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주요 국가와의 외교 네트워크가 약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미중 경제전쟁 등 중요 의제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위험성이 증대된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한해가 저무는 이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해뿐 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은 생사해탈의 길을 묻고 또 물어 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많았다. 대개 그 사람의 현생사를 보면 그 사람의 전생사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마음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내생에 사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나이 40이 되면 다음 생 준비를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이 해야 한다. 마음공부에 공들이지 않으면 다음 생에 사람 몸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생사해탈이 말처럼 쉽지 않다. 노인이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다. 조만다 따로 없고 시기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속세에 지은 바에 따라 거래를 하는 가운데 금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간혹 생명이 더 연장되기도 할 뿐이다. 전생에 지은 업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이미 받을 바가 정해진 정업(定業)이고 또 하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정업(不定業)이다. 정업이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죽는다.' 하는 것이 정해진,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결정 보를 말한다. 그러나 정업처럼 업력이 강하지 못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과보를 받을지 확실하지 않은 업을 부정업이라고 한다. 부정업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업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정업과 부정업을 교차해서 업을 짓고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생에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 첫째는 인연복을 많이 지어야 한다.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면 삼대 발의 쑥이 삼대를 따라 키가 자라듯 그 인연 따라 진급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결국은 가족이 되고 주변 환경이 되니까 좋은 인연이든 낮은 인연이든 나와 연결된 인연은 모두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야 한다. 때때로 주위에 섭섭한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을 더욱 잘 챙겨서 선연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복록을 많이 쌓아야 한다. 같은 노력을 해도 잘되는 집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집이 있다. 똑같이 남아져서 다졌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낫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낫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부처님께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보시라고 하셨다. 우리가 현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무엇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 보통 사람은 받아야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틈만 나면 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주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은 받기보다는 줄 것이 많은 분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주시는 것은 최상의 것이라 복

기고



안재석  
전남도 청년정책팀장

1980년대 초 초등학교 시절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했다. 한 반 학생이 60~70명인데도 교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2500~3000명이라 매일 조화라도 열리면 학교 운동장에 모이기도, 해산하기도 어려웠다. 그들이 지금 50대가 됐다. 그랬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1990년대 초부터 30명 선으로 푹 떨어졌다. 심지어 학생 수가 줄어들어 농촌뿐 아니라 도시학교들까지 잇따라 문을 닫는 형편이다. 지금 성인인 1990년대생은 70~80대 조부모까지 합하면 여러 명이 부양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어진다.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 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통계청에서 지난 3월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나오는 내용을 눈여겨보면, 2023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1만명이며,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 희망을 찾습니다!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치명적이다. 세계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주시하며 우리나라를 지정학적 리스크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래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공동 외신 기자회견은 정부의 회복 노력을 상징한다. '한국의 경제와 외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국제사회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초현실적 상황은 지금도 계속 된다. 현직 대통령은 출국 금지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이에나로 변신한 검찰'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통령 신병을 노리며 소환장을 계속 발부한다. '상상 그 이상의 대통령'은 뭘 더 보여줄지 걱정이다. 12월 3일 밤 우리는 지금 사람이 가진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생중계로 지켜왔다. 몇 몇 사람의 고집과 무모한 행동이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결국 대한민국 공동체의 정치 리더십이 문제의 근원이다. 땃가는 흑독하다. 정치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을 흔드는 상황으로 외신은 "5100만 한국인들이 비상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한다"고 우려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리더십의 대안은 크게 둘로 나뉜다. 집단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심이고 개인으로 보면 '한세표 유안준'으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vs. 이재명과 '신3김

3총'으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이다. 대부분 거론되었거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번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윤 대통령의 '의도하지 않은 기여'다. '갑툭튀의 끝판왕'은 지금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한세표 유안준' vs. '이재명과 신3김 3총'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의 리더십일까? 양당과 그들은 새로운 헌정체제의 7공화국 요구를 고민할까! 걱정이 앞선다. 해례위기의 여담은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극우 파시즘이나 정통보수나 갈림길'에 섰으면서도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며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갈 데까지 갔다. 현재 시점 가장 유리한 위치의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닥치고 공격'이다. '6개월 내에 끝낸다'며 '이재명 2심 전(前) 대선'을 목표로 한다. 자신과 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24회의 보복성 탄핵 시도는 '조폭 정치와 국회 사유화'의 비판을 넘어선다. 그들은 '지금쯤 점령군인 양'하며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하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얘기를 듣는다. '다툼어민주당 재명세'의 논란은 정치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 기만함과 민첩한 변신의 이재명 리더십을 상징한다. 새 리더십을 찾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고민은 공동체의 방향성과 리더십의 조건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리빙딩과 재도약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누가 리빙딩과 재도약의 리더십일까?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생사해탈의 길

이더 더 크고 범부 증생이 주는 것은 최상의 것이 아니라 복이 작다. 정부에서 아무리 복지정책을 잘해도 복이 없는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묘하게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때는 공중(公衆)에 짓고 여러 사람에게 짓고 급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 셋째 생사거래를 자유 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할 때 공을 들이지 않고 영혼이 다음 생을 잘 갈 수 있을까? 영혼이 거래할 때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집착이다. 집착하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기원이 되지 않으면 태대를 할 수가 없다. 영혼은 욕심이 많으면 그 무게로 인해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한다. 영혼이 아래로 가라앉으면 땅을 바라보는 짐승을 부모로 정하지 쉽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부끄럽게 살거나 욕심이 많아서 영혼이 아래로 처지면 틀림없이 하류 증생을 부모로 만나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담박하게 갈 수 있도록 여려한 수양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과사가 없는 마음이니 그 마음을 깨달아 혼란하면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다. 다음 생과 그다음 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수도인이다. 현생을 살면서 복을 많이 짓고, 인연 농사를 많이 짓고, 또 마음 혼란으로 생사거래가 끊어진 그 마음을 혼란해 생사거래에 자유 할 수 있다. 이 뜻을 많이 연마해서 생사가 끊어진 참 마음, 좋다 싫다 선이다 악이다, 그 마음이 나오기 이전의 마음을 챙겨서 다음 생에 자유롭게 거래하기를 바라며 울 한해도 진급하는 한해 이기를 영원히 본다.

청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향해 도전

특히 전남도의 인구 감소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의 인구 절벽 현상 속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04년 200만 명이 무너지고 2013년부터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2024년 11월 말 기준 인구는 178만 9610명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는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은 우리 사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므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직면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청년층의 유출 문제는 지역 사회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2024년을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언하고 청년세대 유입과 청년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교육비가 가중되는 학령기인 18세까지 내년 1월부터 매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미혼·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전국 최초 청년 맞춤 전담형 만원주

택 1000호를 16개 군 지역에 신속 공급하여 청년층에 실질적, 직접적 혜택이 있는 맞춤형 정책으로 전국에 지역소멸 해결 선도모델을 제시했다. 또 청년 종합지원 권역별 거점 공간인 '청년비전센터'를 2026년까지 420여원을 투입하여 동부권(순천시)과 서부권(무안군) 건립 추진과 더불어,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자율 공동체 형성·운영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 전환 촉진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 근속장려금',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인건비 일부와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등 청년들이 정착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 청년 정책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층 유출을 막고, 그들이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전남도가 펼쳐나갈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지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며, 청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전남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

社說

비상상황 속 민주당 낮은 자세로 정국 돌파를

12·3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고, 그에 따른 호남 정치의 지형도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다. 여기에 탄핵 완성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품은 호남의 민심이 자칫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분석들이 있다. 민주당도 호남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야 한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모든 분야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진정한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정당이라면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이 오만에 휩싸여 국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탄핵이 진행되면서 우리 정치의 리더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부여됐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의원 절대 다수를 차지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주도권이 더 큰 것은 명약관하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 민심은 윤석열 후보에게 역대 보수 후보 최고의 득표율을 안겨줬고,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의 경우 조국혁신당을 찍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지만 탄핵 정국 아래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어쩔 수 없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민주당은 사심 없이 국정 전변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탄핵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왔던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은 야당이 힘을 과시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이 자칫의 욕이 넘쳐 폭주하지는 않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법 개정 여순사건...기대 속 과제도 산적

'12·3 내란사태' 속에서도 지난 10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의 조사 기한은 지난 10월로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단될 뻔했던 진상규명 활동을 최장 2년 동안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사 기한 연장 외에 특별재실 규정을 신설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적법 절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성과다.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던 것을 위원 15명 가운데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도 변화된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12·3 내란사태 속에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여순사건위원회 중앙위원회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중앙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만 갖고 있지만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서 이중 조사로 인한 효율성 논란을 낳았다. 이렇다보니 지난 2년 동안 10차례 밖에 회의를 열지 않았고 조사 완료율은 전체 접수 사건의 25% 수준에 그칠 정도로 처리가 더뎠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조사 체계 개선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중앙위 위원 가운데 여순사건 전문 연구자가 한명도 없는데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선임할 때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연구와 추모, 배·보상 등 유족 지원에 총괄할 재단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여순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되더라도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렵게 조사 기한을 연장한 만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無等鼓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은 올 시즌 KBO에 굵직굵직한 기록을 세우면서 '슈퍼스타'로 등극했다. 시즌이 끝난 뒤 이어진 수상식의 주인공 역시 김도영이었다. 프로 3년 차에 KBO MVP에 등극한 김도영은 모든 시상식에서 트로피 수집을 이어갔다. 그리고 김도영은 지난 13일 진행된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통해 '시상식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예상대로 김도영은 전체 288표 중 280표를 획득, 97.2%라는 놀라운 득표율로 첫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하는 무대에서 김도영은 "안주하지 않고 올해 받

이 선수들 플레이할 때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뼈 있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은 80년 5월 광주를 떠올렸다.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는 충격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이들은 통제되고, 고립됐던 그날의 광주를 상상하며 아파했다.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민주주의가 허망하게 뒷날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개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광주를 대표해 뛰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끼여 목소리를 냈다. 스타 선수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의 말은 '정치'가 아닌 사람과 삶을 위한 것이었다. 올 시즌 스포츠계의 화제어 중 하나는 '니 땀시 살아야'다. 김도영을 보면서 울고 웃었던 팬들의 마음을 담은 이 문구는 최고의 유행어가 됐다. 팬들은 김도영 때 문에 웃었지만, 김도영도 팬이 있었기에 빛나는 2024시즌을 보낼 수 있었다.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부와 명예를 누리 고 있는 스타들, 일상이 없다면 그들도 없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瀟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